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로서 앞장섬

(주일—오전 1부 집회)

메시지 7

앞장서서 교회의 유일한 터 위에 서고, 그리스도의 몸의 제한 아래 머물며, 한마음 한뜻 안에서 몸을 의식함

성경: 고전 1:2, 계 1:11, 롬 12:3, 고후 10:13, 엡 4:16, 고전 12:12-27

I. 우리는 앞장서서 교회의 유일한 터, 곧 하나라는 진정한 터 위에 서 있어야 한다.

- A.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대해 말한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와 표현과 실행을 위한 고린도라는 지방을 보여 준다. 그러한 지방은 지방 교회들의 지방적인 터가 되며, 바로 이 터 위에 지방 교회들은 각각 건축된다. 따라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터 위에 건축되었다.
- B. 초대 교회생활의 실행은 한 도시에 한 교회를 갖는 실행, 곧 한 도시에 오직 하나의 교회만 있는 실행이었다. 어느 도시에도 하나를 초과하는 교회가 없었다—행 8:1, 13:1, 계 1:11.
1. 이것이 길이나 구역이 아닌, 도시를 단위로 하는 지방 교회이다.
 2. 한 지방 교회의 관할 지역은 그 교회가 위치한 도시 전체를 포함해야 한다. 즉 그 도시의 경계보다 더 크거나 더 작아서는 안 된다.
 3. 그 경계 내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 그 도시 안에서 하나의 유일한 지방 교회를 구성해야 한다.
 4.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인 하나라는 진정한 터 위에서 우리가 모이는 데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비교 신 12:5.
 - a.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시 133편, 요 17:11, 21-23, 고전 1:10, 엡 4:3-4상.
 - b. 둘째,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으로 모여야만 하는 유일한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 이름의 실재는 그 영이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교파가 되고 분열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음행이다—마 18:20, 고전 1:12, 12:3하.
 - c. 셋째, 신약에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거처는 특별히 우리의 영, 즉 우리의 연합된 영, 곧 신성한 영에 의해 거듭나고 신성한 영이 내주하시는 우리 사람의 영 안에 위치한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우리의 집회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하고 모든 것을 영 안에서 해야 한다—요 3:6하, 롬 8:16, 담후 4:22, 엡 2:22, 요 4:24, 고전 14:15.
 - d. 넷째,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생명을 거절하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마 16:24, 갈 2:20) 제단으로 상징되는(신 12:5-6, 27)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되게 적용해야 한다.

II. 하나라는 진정한 터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는 반드시 앞장

서서 다른 지체들의 제한을 받아야 하며 우리의 분량을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

- A. 하나님은 그분께서 뜻하시는 대로 몸의 모든 지체들을 두셨다—고전 12:18.
1. 머리께서 우리를 몸 안에 있는 각자의 특정한 위치에 두시며, 각자의 특정한 기능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신다—롬 12:4, 고전 12:15-17.
 2. 우리 지체들 각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갖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3. 그러한 지정하심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각 지체가 다 필요하다—고전 12:19-22.
 4. 각 지체에게는 분명한 위치와 분명한 임무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기 위한 특정한 몫이 있다.
 5. 각 지체는 자신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각자가 자신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각 지체의 위치나 직임 혹은 사역을 조성한다—롬 12:4-8.
- B. 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는 우리가 자신의 분량을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다—엡 4:7, 16.
1.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분량에 기꺼이 제한을 받아야 한다—롬 12:3, 6.
 2. 우리가 우리의 분량을 넘어서자마자, 머리의 권위를 넘어서고 기름 바름에서 벗어나게 된다.
 3. 우리는 우리의 분량을 넘어설 때 몸의 질서를 해치게 된다.
 4. 냉철한 생각 없이 우리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높게 생각하는 것은 몸의 생활의 합당한 질서를 소멸시킨다—롬 12:3.
- C. 바울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에 따라 움직이고 행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재어 주시고 측량해 주신 한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후 10:13.
1. 우리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일이나 체험이나 누림을 증언할 때, 반드시 분량 안에서, 즉 어떤 제한 안에서 증언해야 한다.
 2. 우리는 일이 확산되기를 기대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제한 아래 있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한계 없이 확산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후 10:13-15.
 - a.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일을 확산한다면, 항상 어떤 제한이 있을 것이다—비교 고후 2:12-14.
 - b. 내적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어느 정도까지만 일을 확산하고자 하신다는 의식을 가질 것이다. 어떤 지점을 넘어서 일을 확산할 때 내적으로 우리는 평안을 갖지 못한다.
 - c. 외적으로 환경 안에서 주님은 어떤 일들을 일으키셔서 일의 확산을 제한하실 수 있다. 환경은 우리가 특정한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비교 롬 15:24.
 3. 교회의 봉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만 측량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지나치게 뻗어나가지 말아야 한다—롬 12:3-4, 6상.

III. 지방적으로나 전세계적으로 주님의 회복 안에서의 그분의 움직임을 위해 우리는 앞장서서 한마음 한뜻으로 몸을 의식해야 한다—행 1:14, 2:46, 4:24, 15:25, 롬 15:6.

A. 우리는 항상 몸을 고려하고, 몸을 관심하며, 몸을 존중하고, 몸을 위한 최상의 것을 해야 한다—고전 12:12-27.

B. “니 형제님이 몸에 대해 가르칠 때, 그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교회들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교회생활 안에서 소요의 원인이 되는 문제들, 44쪽)

- C. 몸 안에는 독립이나 개인주의가 있을 수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체들이고 지체들은 몸에서 떨어져서 살 수 없기 때문이다—고전 12:27, 롬 12:5, 엡 5:30.
1. 자신이 몸의 지체라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몸을 귀히 여기고 다른 지체들을 존중하는데, 이 지체들 하나하나가 없어서는 안 될 이들이다—고전 12:15, 21, 23-24, 롬 12:3, 빌 2:29, 고전 16:18, 사 9:9.
 - a.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므로, 몸을 위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머리의 느낌을 우리 자신의 느낌으로 취해야 한다—빌 1:8, 고전 12:25하-26.
 - b. 우리는 몸의 생활 안에서 같은 혼이 되고, 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들, 곧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는 교회에 관한 일들을 관심해야 한다—빌 2:20-21, 1:8.
 2. 언제든지 몸에 대한 계시가 있는 곳에는 몸을 의식하는 것이 있고, 몸을 의식하는 것이 있는 곳에는 개인주의적인 생각과 행동이 배제된다.
 - a. 우리가 몸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의 죄악된 생명과 타고난 생명에서 구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개인주의적인 생명에서도 구출되어야 한다.
 - b. 아버지께서 세상과 대립되시고(요일 2:15), 그 영께서 육체와 대립되시며(갈 5:17), 주님께서 마귀와 대립되시듯이(요일 3:8), 몸 또한 개인과 대립된다.
 - c. 우리는 머리에서 독립할 수 없듯이 몸에서도 독립할 수 없다.
 - d. 개인주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 (1) 몸의 원수는 자아, 곧 독립적인 ‘나’이다. 우리가 몸 안에 건축되려면 반드시 자아를 유죄 판결하고 부인하고 거절하며 버려야 한다—마 16:21-26.
 - (2)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뿐 아니라 몸, 곧 형제자매들을 의지해야 한다—출 17:11-13, 행 9:25, 고후 11:33.
 - e. 내가 모르는 것을 몸의 다른 지체가 알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몸의 다른 지체가 보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몸의 다른 지체가 할 것이다—고전 12:17-22.
 - f. 우리가 우리의 동료 지체들의 도움을 거절한다면 그리스도의 도움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주의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조만간 말라 버릴 것이다—고전 12:12.

사역의 말씀에서의 발췌

분량 밖의 사랑을 하지 않음

고린도후서 10장 13절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분량을 벗어나 사랑하지 않고, 분량을 재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 주신 그 분량의 한계에 따라 사랑하는데, 여러분에게 간 것도 그 분량의 한계에 따른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사도는 담대했으나 제한 없이 담대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그가 주님의 제한 아래 있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의 사랑은 분량을 재어 주시는 하나님, 곧 측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누어 주신 그 분량의 한계에 따른 것이었다. 고린도를 포함한 이방에 대한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측량에 따른 것이었다(엡 3:1-2, 8, 갈 2:8). 그러므로 그의 사랑은 유대교적인 교사들이 했던 것처럼 분량을 벗어난 것이 아니고 제한

안에 있었다. 13절에 있는 ‘한계’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목수들이 사용하는 자와 같은 측량하는 막대기를 의미한다.

우리는 분량 밖의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주님께에서 배운 것에 대해 증언할 때에도 우리는 어떤 제한과 분량을 가져야 한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있는 분량은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해주신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이나 체험을 우리의 분량에 꼭 맞게 할당하셨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분에 대한 누림도 우리에게 꼭 맞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일이나 체험이나 누림을 증언할 때, 반드시 분량 안에서, 즉 어떤 제한 안에서 증언해야 한다.

증언할 때나 보고할 때 우리는 결코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어떤 기독교 출판사는 과장하여 보고한다. 이런 보도는 분량을 넘어선 것이고 한계를 넘어 제한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체험을 증언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 안에 머물러야 한다. 우리는 분량 밖의 것이나 분량을 지나쳐 자랑하지 말고, 분량을 재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분량의 한계에 따라 자랑해야 한다. 재어 주시고 측량하시는 분이 계신다. 이분은 측량의 하나님이시며 재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어 주시고 측량하신 한계 안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에게 간 것도”라는 바울의 말은 그가 고린도에 온 것이 하나님께서 재어 주시고 측량하신 것 아래 있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고린도후서 10장 14절은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 아니며, 우리의 범위를 벗어나 스스로 지나치게 나아간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여러분에게까지 나아간 사람은 우리가 처음입니다.”라고 말한다. 유대교적인 교사들과는 대조적으로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스스로 지나치게 나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유럽에 처음으로 간 사람들이었으므로 복음을 들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나아갔다. 만일 유대교적인 교사들이 먼저 그곳에 갔다면 아마 사도들은 가지 않았을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유럽이 그들에게 측량되지 않았다는 표시가 되었을 것이다. 이것이 유대교적인 교사들과 논쟁하는 바울의 요점이다.

고린도후서 10장 15절과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가지고 우리의 분량을 벗어나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의 한계가 여러분 안에서 확대되어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다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것일 뿐, 다른 사람의 한계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들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들이 고린도에 있는 믿는 이들의 믿음이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사역이 넘치도록 확장되고 증가되어 확대되기를 소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어 주신 한계, 곧 분량에 따라 확대되기를 소망했다는 것을 본다. 바울은 하나님의 측량의 한계에 따라 고린도인들 가운데서 확대되기를 바랐다.

하나님의 제한

고린도후서 10장 13, 14, 15절에서 우리는 일이 확산되기를 기대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제한 아래 있기를 배워야 한다. 한계 없이 확산되기를 기대하지 말라. 그러한 확산은 분명 그 영을 따라 행함으로 제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체험을 통해 우리는 만일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일을 확장한다면 거기에는 항상 어떤 제한이 있게 된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다. 내적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어느 정도까지만 일을 확산하고자 하신다는 의식을 가질 것이다. 더욱이 외적으로 환경 안에서 주님은 어떤 일들을 일으키셔서 일의 확산을 제한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지점을 넘어 그 일을 확장시키려고 하면 내적으로 평안이 없고, 외적으로 환경은 특정한 경계선을 벗어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청년들은 아직 주님의 일 안으로 그다지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말씀을 그들 안에 간직할 것을 격려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젠가

이것을 체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한 봉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항상 제한이 있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이것은 또한 교회의 봉사에도 마찬가지이다.

주님은 특히 청년들을 제한하는 것에 관심을 두신다. 만일 청년에게 주님을 섬기 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분은 그분을 섬기도록 그들을 분발시키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분발될 때 그분은 그들을 제한하실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이런 부류의 제한을 좋아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잠자는 것이나 행동에 제한받기를 싫어 할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잘 때 우리를 흔들어 깨우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활동적일 때 그분은 우리를 제한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실족한 몇몇 청년들을 알고 있다. 어떤 청년 형제는 청년들 가운데서 인도자가 되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만일 그가 인도자가 된다면 그는 또다 시 교회 안에서 집사나 장로가 되기를 원할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는 빨리 진보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처음에는 우리를 빠르게 했다가 나중에는 느리게 하고, 처음에는 우리를 올렸다가 나중에는 떨어지게 하신다. 우리가 내려갈 때 그분은 우리를 올리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 그분은 우리를 낮게 내리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올렸다가 내렸다, 내렸다 올렸다가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올리고 내리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결국 그분의 일에서 유용하게 될 것이다.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올렸다가 내렸다 하시는 것을 참지 못한다. 얼마간 오르락내리락한 뒤에 그들은 그만두고 싶어 한다. 그들의 태도는 이런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기 원하신다면 하늘 끝까지 높이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기에 머물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기 원하신다면 나로 아래에 머물게 하소서. 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올렸다가 내렸다 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많은 청년들의 기질을 잘 보여준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위에 있는 것도, 항상 밑에 있는 것도 원하지 않으신다. 심지어 밤낮이 바뀌는 자연의 순환도 이것을 증언한다. 끝없는 낮이 없고 끝없는 밤도 없다. 반대로 낮과 밤이 있고, 밤과 낮이 있다. 하나님은 낮이나 밤이 수년간 지속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길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길은 그렇지 않다.

주님의 제한을 받아들이기를 배움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이끄는 많은 방법을 갖고 계신다. 어떤 청년들은 결혼 생활에 의해 밑으로 내려간다. 어떤 형제는 결혼하기 전에는 창공으로 솟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았을지도 모른다. 그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교회생활에 대해 쉽게 말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교회생활은 더 이상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한 형제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 그의 결혼을 사용하신다. 많은 경우에 이 같은 형제들은 결혼 후 긴 기간 동안 아래에 머물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비록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영광하지는 않지만 다시 올라간다. 이것이 진보의 표시이다.

때때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끌어내리기 위해 장로 중의 한 사람을 사용하실지도 모른다. 이러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때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분을 누르는 분이 장로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분은 장로를 사용하여 이 일을 하신다. 아무 의도 없이 그 장로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할지도 모른다. 그럴 때 그 말이 여러분을 아래로 내려가게 한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다루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떤 분량을 우리에게 할당해 주시는 측량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엄중한 문제임을 깨닫는다. 어떤 형제들은 펍 오랫동안

안 밑으로 내려가 다시는 결코 올라올 것 같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기간이 경과한 후 그들은 다시 올라올 것이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다른 어떤 형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추측하여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우리의 통제나 조절 너머에 있는 것 같다. 그렇다. 우리는 이것을 통제하거나 조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것을 조절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이것이 우리를 우리의 분량 안에 두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나라에서 주님의 회복은 어느 정도 확장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확장에 어떤 제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주님께서 영원히 회복의 확장을 중단하시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서의 요점은 이것이다. 우리의 관념은 일단 주님의 회복이 확장되기 시작하면 아무 제한 없이 점점 더 확장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관념이 아니다.

바울은 매우 영적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전혀 달랐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바울일지라도 주님께 제한받는 것을 배워야 했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 그러나 결박된 채 그곳에 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더욱이 그는 로마에 있는 믿는 이들에게 그들의 전송을 받아 스페인에 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롬 15:24). 바울은 스페인에 한 번도 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결박되어 로마에 도착했다. 이런 묶임은 주님의 측량, 즉 주님의 제한이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자유로운 방법으로 로마를 할당해 주지 않으셨다. 대신에 하나님은 죄수인 그를 그곳에 인도하셨다. 그렇다. 바울은 로마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곳 감옥에 있었다. 이 갇힘은 하나의 제한이었다. 로마는 제한 없는 방식으로 바울에게 할당된 영토가 아니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바울에게 발생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 이것은 바울의 묶임과 갇힘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제한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측량하심에 복종하기를 원했다. 그는 이 제한을 넘지도 않았고 그것에 대항하여 거역하지도 않았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는 가시채를 걸어차지 않았다.

그분이 한정하신 관할구역 내에서 행동함

하나님의 측량이라는 이 원칙에 근거하여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행한 것이나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의 분량을 넘은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바울은 항상 그의 분량 안에서 행동하고 처신했다. 현대 용어를 사용하자면 그는 자신의 관할구역 내에서 행동했다. 유대주의자들과 대조적으로 바울은 결코 그의 관할구역 너머로 나아가지 않았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고린도 성도들이여, 교회인 여러분은 유대교적인 교사들이 온 것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들 교사들은 비록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유대교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또 한편으로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교회생활을 손상시킵니다. 고린도 성도들 여러분은 그들로 인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유대교도들이 결코 고린도에 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린도를 할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는 그들의 관할구역이 아닙니다. 정직히 말해서 고린도는 나의 관할구역이요 나의 지경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에 있는 바울의 관념이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직선적으로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은 그에게 매우 곤란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여기에는 바울이 고린도에 온 유대교도들을 유죄 판결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유대교도들처럼 스스로 지나치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이룬 것은 우리였습니다. 그것은 고린도가 우리에게 측량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어 주심에 따라 왔습니다. 하나님은 고

런도를 우리에게 할당하셨지 유대교도들에게 할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지적으로 하나님은 유대교도들에게 아무것도 할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어느 곳에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불법적인 것이며 합당한 관할구역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구절들 안에 있는 기본적인 사상이며 바울이 글을 쓸 때 그의 영 안에 있던 느낌이었다.

사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재어 주심에 따라 움직였다.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측량해 주신 것은 그들의 관할구역이 되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간섭하지 말아야 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구역을 유대교도들에게 할당하셨다면 사도들은 그 구역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스스로 지나치게 나아간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전파자들과 교사들은 스스로 지나치게 나아가 다른 이들의 관할구역을 간섭한다. 이런 지나침과 간섭은 항상 어려움을 초래한다.

하나님께서 할당해 주신 분량 안에 머무름

교회 봉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직 어느 정도의 분량만을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다는 것과 우리가 스스로 지나치게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제한과 우리의 관할구역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영역 안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바울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한계,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측량해 주신 정도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해야 한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부른 것으로 인해 고린도가 그의 한계와 그의 분량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유럽으로 부르신 것이 바울에게 분명해졌다는 것을 안다. 그는 하나님의 재어주심에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아가야에 갔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는 다 바울의 한계 아래 있었다. 그러므로 유대교도들은 이 영역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았어야 했다. 이것이 이 구절을 쓸 때 바울의 깊은 속에 있던 느낌이었다.

고린도후서 이 부분에서 바울은 그의 사도의 권위를 변명하고 있다. 이 권위는 관할구역과 관계된다. 만일 바울에게 어떤 관할구역도 없었다면 그의 권위는 무엇이겠는가?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권위에 대한 변명에서 자신의 분량의 한계를 지나쳐 나가지 않은 이로서 처신했다.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제한 아래 있는 사람의 좋은 본이다.

나는 특히 청년들에게, 이 부분의 말씀을 연구하며, 어떻게 교회 봉사에서 처신하며 어떻게 주님의 회복 안에서 움직여야 할 것인지를 이 말씀에서 배울 것을 격려한다. 청년들이여, 여러분은 자신의 한계와 제한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측량하셨으며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할당하셨는지를 알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제한과 한계는 매우 실지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처리한다. 우리의 타고난 사람은 제한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경계와 제한을 정하시어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할당해 주신 분량 안에 머무르도록 하신다.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471-478쪽)